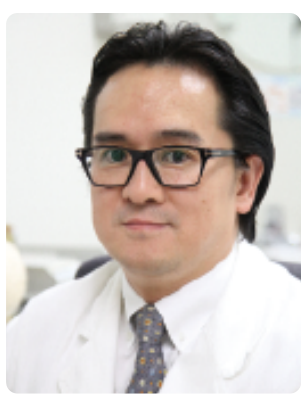


따뜻한 만남으로 행복을 나누세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01 신경외과 양승엽 교수, 소아 악성 뇌종양 전이 핵심인자 밝혀



신경외과 양승엽 교수와 서울대학교암병원 청소년 암센터 김승기·최승아 교수 연구팀은 소아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수모세포종'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데 관여하는 중요한 핵심 인자를 밝혔다.

수모세포종 치료에서 전이 여부는 치료 방침 및 예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금까지 전이가 어떤 기전으로 이뤄지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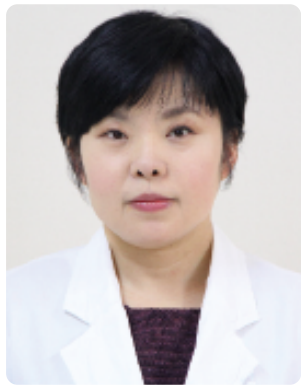
연구팀은 실험용 생쥐를 대상으로 비교 군에는 비강 내에 miRNA-192를, 대조군에는 위약을 투약한 후, 수모세포종의 전이 여부와 종양의 성장 정도 및 생존 기간을 관찰했다. 그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종양의 성장과 전이가 억제되고 생존기간도 효과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실험군 50일, 대조군 32일)

연구팀은 miRNA-192가 종양 유전자인 DHFR을 선택적으로 억제하고, Integrin αV , Integrin $\beta 1$, Integrin $\beta 3$, CD47등의 상호작용 또한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종양의 성장 및 타부위로의 전이를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승엽 교수는 “임상적으로 전이가 된 환아에 대한 치료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miRNA-192가 전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수모세포종의 전이에 대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온코타겟(Oncotarget) 온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되었다.

02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교수,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연구 지원상 수상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교수는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연구 지원상’을 수상했다.

‘연구 지원상’이란 심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 내용이 매우 우수하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연구과제에 주는 상으로 이번에 수상한 김도연 교수는 “생의 말기 돌봄 교육과정 설문조사: 의학교육에 통합하기 위한 모색”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진행성 암을 포함한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 문제들을 습득하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공동연구자로 본원 신장내과 신성준 교수, 의학교육학과 김경지 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남은미 교수, 이순남 교수가 참여하며, 한국윤리학회 부회장이자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가 자문을 맡게 된다.

03 병동 화재에 대비한 침대 환자 대피훈련 실시

병동간호팀과 시설관리팀은 지난 4일 병동 내 화재 발생 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의 소방훈련을 101병동에서 실시했다.

병동은 중증도가 다른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환자 맞춤형 대피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훈련은 거동이 어려운 침대 환자의 대피시간을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견, 보완하는 동시에 환자를 더욱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환자 이송 시트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침대 매트리스와 환자를 함께 계단으로 이송하는 실전 같은 훈련으로 진행하여 화재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훈련은 병동간호사와 자위소방대의 역할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침대 환자 대피방법에 대한 동영상 제작하여 병동 간호사 및 자위소방대의 화재대응 능력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04 2015년 의무기록 우수과와 우수의 표창

의무기록실은 2015년도 의무 기록이 우수했던 진료과와 전공의를 11월 11일 EMR위원회에서 선정하고 12월 7일 직원 아침조회 때 시상했다.

2015년 의무기록 우수과는 산부인과가 차지했으며, 우수의는 △안과 1년차 김민한, △소아청소년과 1년차 박상규 △이비인후과 1년차 유건희 △한방재활의학과 1년 차 장세주 △한방내과 1년차 노현석이 각각 선정되었다. 우수과는 표창장과 상금 50만원, 우수의는 표창장과 상금 10만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EMR위원회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로 작성할 기록 항목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 작성에 힘써 주신 진료부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환자안전에 위해 의무기록 완성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05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계약 사업장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보건관리대행팀은 ‘심장의 골든타임 4분!! 4분의 기적을 만드는 심폐소생술’의 주제로 희성전자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종 사건, 사고 현장 또는 근무지에서 심정지 환자 등 인명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심폐소생술 요령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응급활동의 원칙 △응급구조 시 안전 수칙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했다. 특히, 전 직원들이 술선수범하여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함으로써 회사 내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연말정산 Tip⁺

201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자!

연말정산 세 번째 시간으로 인적공제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 인적공제 방법〉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나이 : 20세 이하(1995.01.01. 이후 출생), 60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

– 소득 :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소득 금액이란?

1. 소득 금액은 총 급여와 다르다

: 2015년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

2.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 일용근로소득(아르바이트),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 배당) 2천만 원 이하

3. 퇴직소득, 양도소득

: 퇴직금을 1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인적공제에서 거의 제외.

올해 부동산 등을 팔았다면 양도소득금액(양도세 신고서)을 확인한다.

4. 부양대상 가족 중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소득 금액을 확인한다.

: 사업소득금액(매출-비용)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넣을 수 있다.